

'영암군 전통시장 나르美'

시장 이용 활성화 기여

구입 물품 버스승강장·터미널·주차장까지 배송

영암군은 10월 중순부터 관내 전통시장(영암, 신북, 시종, 독천)에서 고객이 구입한 물품을 인근 버스승강장이나 터미널, 주차장까지 배송해주는 '전통시장 나르美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전통시장 나르美 사업은 영암·독천시장 4명, 신북·시종시장 2명으로 구성되어 시장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장 내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이동이 불편하거나 시장

바구니가 무거울 경우, 시장 내 설치된 호출벨을 누르면 시장 나르美가 고객에게 다가가 목적지까지 물건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다.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인 고령 및 중장년 고객들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양의 물품을 한번에 배달해주는 방식이라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 나르美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비스가 운영된다.

2020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 연계와 기간제근로자 채용 병행함으로써 시장 나르美 인원을 각 시장별 8명, 총 32명으로 구성하여 버스 승·하차 서비스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풍부한 양과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고객 입장에서 장보기 편하고 다시 들르고 싶은 전통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나르美 서비스를 비롯해 앞으로 전통시장 내 구매 편의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재가 암 환자와 국향대전 나들이 진행

함평군보건소는 지난 22일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 '희망디딤돌' 회원 46명과 함께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찾았다.

이번 나들이는 재가 암 환자들 간 유대를 강화하고 암 극복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건소 방문보건팀은 축제장 방문에 앞서 부상방지를 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혈압·혈당을 확인하는 등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후엔 보건소가 초빙한 전남도 문화해설사와 함께 국향대전 축제장을 돌며 늦가을 정취를 맘껏 만끽했다.

특히 올해 국향대전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메인 테마로 하는 만큼, 독립문 등 주요 조형물과 지역 출신 일강 김철 선생을 비롯한 10여 명의 독립운동가 일대기를 설명받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A씨는 "투병 중 이따비니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적어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모처럼 나들이를 나와 보니 아픈 줄도 모르겠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함평=김광춘 기자



장성군, 새내기 공무원 소양교육 실시

군정 이해 및 올바른 공직마인드 함양

옐로우시티 장성의 미래를 이끌 이갈 신규공무원들이 공직자의 자세 및 기본 소양을 배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군은 지난 22일 오후 임용된 신규공무원 41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신규임용 공무원 기본 소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정의 이해와 공무원의 소양교육 등 이론교육으로 시작됐으며, 각 업무 분야별 부서장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업무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근무시 실질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내용과 사례 중심으로 밀도 있게 진행됐다.

또 새내기 공직자들은 선배 공

직자와의 대화를 통해 행정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고 장성군의 주요 시책과 군정 방침에 대해 공유했다.

이후 청백리의 상징인 박수량 선생의 묘와 배비를 찾아 청렴의 의미를 새기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필암서원을 방문해 성리학자 허서 김인후의 발자취를 되짚었다.

교육 마지막에는 장성의 대표적 관광지를 탐방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장성호 수변길과 옐로우 출렁다리를 걸으며 끝없이 펼쳐진 장성호의 전경을 감상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무안군, 단감 신상품 현장 설명회 가져



무안군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가을을 알리는 대표 과일인 단감 수확이 한창이다.

무안군 단감 연구회(회장 진성원)는 본격적인 단감 수확철을 맞아 최근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소재 진일장(단감 마이스터) 과수원에서 회원농가, 관계 공무원 등 3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감 신상품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현장 설명회 후 단감 신상품(조안, 원추, 태추, 로망) 시식회도 진행하였는데 기존 품종인 부유에 비해 과밀도가 높아 아삭하며 단재 진일장(단감 마이스터) 과수원에서 회원농가, 관계 공무원 등 30

진도군, '제2회 수산물 축제' 개최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고군면 가계해수욕장서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2회 진도 수산물 축제가 고군면 가계해수욕장에서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다.

진도 수산물을 판매·홍보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맛 좋고 품질 좋은 진도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행사를 진도군수협

에서 마련했다.

축제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도군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

축제 첫날인 26일은 전북축시사회, 수산물반값경매, 맨손 물고기잡이 체험, 수산물가요제 예선, 진도민속문화 공연과 진도출신 가수 송기인 등 유명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이튿날인 27일은 팼제와 신

놀라는 분위기였다.

진일장 교수(76세)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단감 마이스터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 농업기술센터 및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단감의 명성을 높인 데에는 단감 마이스터 진일장 교수의 숨은 노력이 엮여있다.

무안군 또한 과수품질현대화사업 등 단감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 지역에 비해 특색 있는 과수 품종이 적은 편이나 전국에서 손꼽히는 단감 마이스터 진일장 교수와 함께 우리지역 단감을 전국을 대표하는 과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지원 등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기한 미술공연, 품바공연, 수산물 가요제 본선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진도군수협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진도군의 수산물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다양한 부대 행사와 향토 음식점과 특산물 판매장 등이 운영되어 진도군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진도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조성용 기자

완도군, 바다와 어우러진 국화 전시회 개최



'2019 완도국화전시회'가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17일 간 다도해일출공원 완도타워 일원에서 열린다.

국화전시회는 완도군의 대표 축제인 '2019 청정완도 가을빛여행'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다른 지역의 국화 축제와 차별화되게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완도타워에 15종, 2만 2천 점의 국화를 전시했다.

또한 완도타워 앞마당에서는 통기타와 색소폰, 추억의 팝송 공연이 펼쳐져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완도타워 내부에는 '완도사랑 국화동호회' 회원들의 국화 분재 작품과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그림과 시가 국화와 어우러져 전시된다.

아울러 가족과 함께 미니액자 그림그리기, 캐릭터 팔찌 만들기,

팽이 색칠하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완도꽃차 가공연구회'에서 만든 향긋한 꽃차와 꽃음료를 시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도해일출공원 입구에서 중앙공원까지는 모노레일이 운행되고 완도타워에서 중앙공원까지는 질라인이 운행되고 있어 완도로 가는 여행을 온다면 국화 향기를 맡으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청정완도의 가을 빛 정취를 만끽하고 갈 수 있도록 행사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